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MERICAS

미주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10/12~10/18

1. 서부 항만 물동량 기록 경신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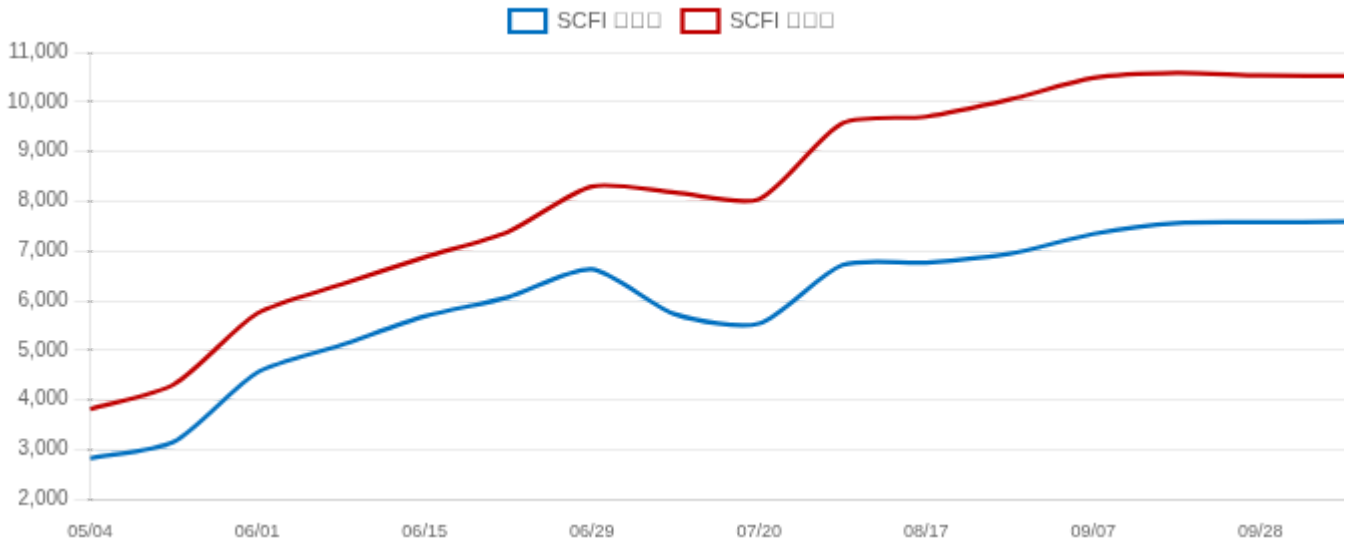
종합

2026년 9월 미국 서부 항만인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동시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례적인 호조를 보임. 특히 로스앤젤레스항은 월간 물동량 100만TEU를 처음으로 돌파하며 항만 역사에 한 획을 그었고, 롱비치항도 전월 대비 25% 급증하는 강한 성장세를 나타냄.

이러한 물동량 급증은 미국의 견조한 소비 수요와 연말 성수기 대비 재고 확보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됨. 다만 두 항만의 동시 최대 물동량은 항만 혼잡과 물류 병목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해상 운임 상승과 공급망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따라 미국 수입 기업들의 물류 관리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미서안	7,584 $/FEU	10/05	+0.1%	+3.3%
SCFI 미동안	10,524 $/FEU	10/05	0.0%	+0.4%
KCCI 미서안	8,258	10/12	+0.8%	+10.3%
KCCI 미동안	11,609	10/12	+3.6%	+5.4%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10/05

서부 항만 물동량 기록 경신

> **2026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각각 월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로스앤젤레스항은 1,042,652TEU로 월 100만TEU를 처음 돌파했고, 롱비치항은 997,177TEU로 전월 대비 25% 증가함.**

2026년 9월 서부 두 항만의 물동량은 기록적인 수준을 나타냄. 로스앤젤레스항은 118년 역사상 최대 월간 처리량인 1,042,652TEU를 기록했고, 이는 종전 최고치(2025년 7월)보다 2만TEU 이상 많은 수치임. 롱비치항도 115년 역사상 최대인 997,177TEU를 처리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함. 두 항만 모두 수입 화물의 급증이 전체 물동량 증가를 견인함.

물동량 급증의 주요 원인은 미국 소비 수요의 회복과 재고 보충, 그리고 중국발 화물의 서부 항만 선호 현상임. 로스앤젤레스항의 진 세로카 사장은 소비자 수요의 견조함과 재고 보충, 화주들의 서부 항만 할당 증가를 요인으로 지목함. 롱비치항의 노엘 하세가바 사장은 높은 디젤 비용, 파나마 운하 통항 제한, 미·중 무역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비한 화주들의 선택이 롱비치항 물동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함. 또한 두 항만 모두 빈 컨테이너 반출입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아시아로 돌아가는 빈 컨테이너 수요가 높음을 시사함.

기록적인 물동량에도 불구하고 항만 혼잡은 발생하지 않음. 롱비치항은 기록적인 물동량에도 혼잡이 없었다고 밝혔으며, 터미널 운영사인 TTI는 월간 철도 처리량 신기록(59,410회)을 세우는 등 효율적인 화물 처리가 이루어짐. 로스앤젤레스항도 빈 컨테이너 처리량이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항만 운영에 큰 차질은 보고되지 않음. 다만, 롱비치항은 빈센트 토마스 다리 보수 공사(11월 7일 시작, 16개월 예정)에 대비해 10월 말부터 컨테이너 터미널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임.

이러한 물동량 증가는 서부 항만의 처리 용량에 부담을 줄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원활하게 대응하고 있음. 두 항만 모두 2026년 1~9월 누적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증가한 상태임. 향후 미·중 무역협정 체결 여부와 관세 정책 변화가 물동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수기가 연장될 가능성도 제기됨.

- 로스앤젤레스항 9월 물동량 1,042,652TEU로 월간 역대 최고, 전년 동월 대비 수입 19% 증가 (545,696TEU)
- 롱비치항 9월 물동량 997,177TEU로 115년 만의 최대,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 수입 31.3% 급증 (509,390TEU)
- 로스앤젤레스항 3분기(7~9월) 처리량 약 300만TEU로 분기 최대, 6~9월 4개월 연속 400만TEU에 근접
- 롱비치항의 높은 디젤 비용, 파나마 운하 제한, 미·중 무역협정 기대감이 화주들의 서부 항만 선택을 유도
- 롱비치항 TTI 터미널의 월간 철도 처리량 59,410회로 항만 신기록, 항만 혼잡 없음

전망

서부 항만의 물동량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미·중 무역협정 체결 시 중국발 수입이 더욱 증가할 수 있고, 파나마 운하 제한으로 서부 항만 선호 현상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금리 인상과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경우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음. 항만 인프라 투자와 효율적 운영이 뒷받침된다면 기록적인 물동량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시사점

화주 — 서부 항만의 처리 능력이 입증된 만큼, 물류 지연 우려를 낮추고 서부 항만을 경유하는 공급망 전략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포워더 — 빈 컨테이너 반출입 증가와 철도 연계 운송 수요 확대에 대응해 내륙 운송 서비스와 장비 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함.

항만·선사 — 기록적인 물동량에도 혼잡이 없었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빈센트 토마스 다리 보수 등 인프라 공사에 따른 물류 차질을 최소화할 대책이 요구됨.

참고자료: FreightWaves, New Long Beach record as volume nears 1M containers · FreightWaves, 1 million boxes set new Los Angeles port record (검색일: 2026-10-18)